

도시 속 마을만들기 그 현장을 가다



(2) 광주 북구 임동

도시에서 마을을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노후 단독주택 지역이 대상지로, 마을의 공동체 회복이 그 목표가 되고 있다. 젊은 층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주민이 50대 이상이면서 영세민인 지역을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모시키는 '판박이' 재개발·재건축에 '신물'이 난 도시의 또 다른 선택인 것이다. '마을 만들기'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삭막한 도시에서 '사람 냄새나는 공간'을 만들자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더 나을 듯 싶다.



숲의 마을 임동 마을 만들기의 거점이 되고 있는 대원시장 내부.

버려진 화분에 꽃 심어 골목길 꾸미니 아이들엔 야외 교실, 주민들엔 만남의 장소로

쇠퇴한 대원시장 '변영의 상징' 옛 명성 재생
사람 냄새나는 동네 만들기 주민들도 솔선
예산·자원봉사 지속여부가 사업성공 열쇠



폐화분으로 꾸민 골목길을 설명하고 있는 이창군 할아버지.

올 초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아닌 광주시가 구도심 재생 대책으로 내놓은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의 대상지는 북구 임동, 남구 방림1동 등 모두 5곳으로, 2억원씩 사업비가 지원됐다. 이 가운데 북구 임동은 '숲의 마을'을 내걸고 쇠퇴한 시장의 재생, 버려진 화분으로 골목길 꾸미기, 마을 소식지 발간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4409세대 1만849명이 거주하고 있는 임동은 단독주택 거주 세대가 3026세대로, 70%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구도심이다.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유림수(柳林叢)가 있어 임동이라는 명칭을 얻었으며, 당시 광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유일한 관문으로 교통의 중심지였다. 1934년 가네보방직공장이 들어서 이후 전남·일신방직 등이 이어졌고, 1965년 무등경기장이 신축되면서 1980년대까지 광주에서 가장 북적거리는 곳이었다. 그러나 30여 년 전부터 광주 외곽에 대한 개발이 가속되고 방직·방직산업의 몰락 등에 따라 일자리도 줄어들면서 임동도 침체하기 시작했다. 노인과 영세민들의 거주비율이 높아지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주거·상업공간에 대한 소유주의 투자도 멈춰버렸다. 대원시장에 남아있는 3곳 점포 중 1곳인 야채상 박귀자(51·여)씨는 "20년째 이곳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한창때는 32개 점포가 꼭 차 마치 지금의 소궤물 같았다"고 회상했다. 2층 건물의 대원시장은 1층 상점, 2층 주거공간으로 신축 당시만 해도 광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주상복합건물이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슬레이트 지붕에 녹슨 기둥, 셔터 내린 점포판이 남아 있었을 뿐이다. '숲의 마을 사업'이 이곳을 거점으로 정한 것은, 임동 주민들이 대원시장을 과거 변영의 상징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주민자치센터 송창주(37)씨는 "주민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생각부터 들어보는 것"이라며 "전문가 그룹과 닥터가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동네의 미래상을 이끌어낸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대원시장 소유주와 무상임대 협약을 맺고 두 달간 청소 끝에 목공소, 마을예술단 사무실 등을 설치한 것이 올 상반기. 서서히 임동은 변하고 있다. 버려진 화분에 꽃 심어 골목길을 채우고, 버려진 빈집까지 주민들의 관심 대상으로 부각됐다. 골목길은 인근 서림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실이 되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됐으며,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투어코스가 되고 있다. 이창군(72) 할아버지는 "임동이 밝아지고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지금의 사업에 만족한다"며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다니다 만나는 주민들의 표정이 과거와는 다르다. 골목길은 인근 서림초등학교 걸림돌이라면 여전히 주민 상당수가 고층 아파트 개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 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 전문가와 닥터 등 지원그룹의 '자원봉사'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기대치를 꾸준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사업 성공을 가능할 수 있는 잣대가 되고 있다. /글=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임동 마을예술단 닥터 유재명씨

"주민들 이야기를 임동 발전 씨앗으로"



"처음엔 동네 어르신들 만나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재개발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셨고, 이러한 방식에 대한 이해 정도도 낮았지요." 숲의 마을 임동의 마을예술단 닥터 유재명(34)씨는 북구 시화마을 문화기획팀장을 맡았던 작가다. 미술을 전공한 그가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프로듀서로, 주민 사이에 스며들어

광주시청, 북구청, 임동주민센터와 주민들을 연계시켜주는 교역할을 하고 있다.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봐야 하고요. 대원시장의 외관을 그대로 둔 것도 시설 개선보다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16명의 작가가 참여한 마을예술단의 상시근무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자원봉사'의 한계가 그 원인이다. 유씨가 고민 끝에 마을예술단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기로 한 것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결합해 사업을 계속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화분을 가꾸려면 물이 필요하잖아. 수돗물로 하는 것은 남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수통을 만들어봤습니다. 임동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 행정기관과 주민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마을 문제를 풀어내는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임동 발전의 '씨앗'으로 만들어 행정기관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오전에도 그는 중고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 곳곳을 돌았다. /윤현석기자 chadol@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결을 이 행사가!”

-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 객실 50% 할인 및 조식뷔페 (30종) 무료제공
- 각종 연회행사 할인! (돌잔치, 회갑연, 송년모임, 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오직 **호텔 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 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점차와 즉석김치도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수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

슬로우시티 담양!!

한옥(예정)마을 조합원 추가모집

금번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일대에 한옥(예정)마을을 조성코자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향후 지정예정이며, 경질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면적 32.195㎡ (구, 9.739형) 대지에 31세대 분양
- 고서-대덕간 도로확장공사 예정, 개통시 광주-대덕간 9분 소요
- 순천 및 서물방향 진출용(청평 IC)
- 버스노선 518, 303번 운행 말바우시장 20분내 도착가능
- 조합원 기금비 200만원 납부
- 태양광 및 지열을 이용한 전력공급 시스템설치 (세대당 설치비 부담 있음)
- 제1금용권 3,000만원(연리 2%)까지 대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향후 한옥(예정)마을을 민박촌으로 지정 예정이며 창평 슬로시티 및 담양 인근 관광지 숙박 유치 (메타세콰이아길, 죽녹원, 관방제일, 한옥 행복마을 현장)
- 소채원, 식영정 등 주변 관광지 다수로 전원생활과 소득창출 가능

조합원 가입문의 ▶ 010-7210-6118 · 010-4025-2340 · 010-4025-6911 · 062-265-3125
현장위치 :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212번지 일원